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0-7700

전열정비 KIA, 전력질주 한다

양현종

마운드

양현종·스틴슨 명품 투수전…강력 원투펀치

방망이

김민우·이은총 빠른발에 결승타로 존재감 폭발
이범호·필, 기회마다 시원한 한방…타격감 상승

새얼굴

트레이드 유창식·노수광·오준혁 성공 신고식

전 력

김주찬·신종길·김원섭 등 부상 선수들 복귀
최희섭·김진우·나지완 제외 베스트 라인업 완성

■ 프로야구 중간순위 (6월 1일 현재)

	팀	승	패	무	승률	연속
1	NC	30	19	1	0.612	2승
2	삼성	31	20	0	0.608	3승
3	두산	28	19	0	0.596	3승
4	넥센	28	23	1	0.549	4승
5	롯데	28	24	0	0.538	1승
6	SK	25	23	1	0.521	3패
7	한화	26	25	0	0.510	1패
8	KIA	24	26	0	0.480	2패
9	LG	21	30	1	0.412	4패
10	kt	10	42	0	0.192	3패

2015 TIRE BANK KBO LEAGUE

극과 극의 5월이자 극적이었던 KIA의 5월이었다.

트레이드와 줄부상으로 전력의 변화가 많았던 5월, 12승13패로 흑자 살림에는 실패했지만 팬들을 환호케 한 강렬한 경기와 스타들은 남았다.

5월 시작에는 외야수 이은총의 강렬한 눈빛이 있었다. 육성선수 출신의 이은총은 5월1일 정식 선수로 등록되면서 대주자로 프로 데뷔전을 치렀다. 그리고 다음날 처음 타자로 나선 이은총은 3타점 2루타를 날리며 결승타의 주인공이 됐다.

6일에는 트레이드를 통해 새얼굴이 등장했다. 고향으로 돌아온 좌완 유창식과 함께 한화에서 트레이드된 '군필 외야수' 노수광·오준혁이 KIA선수로 나선 첫 경기에서 나란히 안타를 때려내며 신고식을 치렀다.

'만루 사나이 ' 이범호의 묵직한 역전 만루포도 극적이었다. 8·9일 넥센의 홈런 퍼레이드에 고개를 숙였던 KIA는 10일 7회 무사만루에서 나온 이범호의 만루포로 단숨에 승부를 뒤집으며 11-6 승리를 거뒀다. 이범호는 이 홈런으로 심정수와 프로야구 역대 만루홈런 최다 타이(12개)를 기록했다.

김민우도 5월을 살린 '깜짝 스타'였다. 13일 kt와의 홈경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경기였다. 마무리 윤석민까지 3실점으로 무너지면서 분위기가 kt로 기울었지만 연장 10회말 2사에서 김민우가 자신의 생애 첫 끝내기 홈런을 역전 스리런으로 장식했다. 5월 중반 가장 뜨거운 타격감을 과시한 김민우는 지난 한달 20경기에서 2개의 홈런 포함 71타수 27안타, 0.380의 타율과 11타점을 기록했다.

필의 집중력도 5월을 빛나게 했다. 공·수에서 가장 많은 이닝을 소화하느라 고전도 했지만 5월 한 달 4개의 결승타를 남겼다. 17일 두산전도 필이 주인공이었다. 3-3에서 시작된 9회. 앞선 4타석에서 침묵을 했던 필은 김주찬의 고의 사구로 만들어진 2사 1·2루에서 이 경기 자신의 첫 안타이자 경기의 마지막 안타를 때려내며 환호했다. 자신의 올 시즌 두 번째 끝내기. 1-0, 2-0의 숨막히는 마운드 힘겨루기를 통해 수확한 4년 만의 삼성전 위닝 시리즈에서도 필이 모두 결승타를 책임졌다. 해피엔딩은 아니었지만 31일 NC전에서는 9회 투런포로 6-7을 만들기도 했다.

삼성과의 명품 투수전을 연출한 양현종과 스틴슨도 5월을 빛낸 선수다.

극적이었던 5월을 뒤로하고 안정감 있는 승률 쌓기에 나서야 할 때다. 5할 언저리에서 빙빙 돌고 있는 KIA는 두산·롯데와의 원정 6연전으로 6월 일정을 시작한다. 최희섭이 허리 통증 악화로 엔트리에서 제외됐고, 4번을 지켜온 나지완도 부진으로 2군에 머물고 있는 등 두 거포의 부재와 기약 없는 김진우가 남았지만 주축 부상병들은 거의 돌아왔다. 현재 전력이 사실상 올 시즌 KIA가 꾸려나갈 수 있는 베스트 라인업이다. 그래서 지난 주 대전 원정에 이어 NC와의 홈경기를 모두 루징 시리즈로 마무리 한 점은 더 아쉽다.

팀을 들썩이게 할 선수들의 깜짝 활약, 전력을 극대화할 벤치의 세밀함이 필요한 6월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이승엽 400호 홈런볼 잡아라

경매가 1억원 넘을 듯…기증하면 시구 등 각종 혜택

야구공에 의미를 부여하면 가격이 오른다. 평범한 야구공이 한국프로야구 통산 400호 홈런 기록을 앞둔 이승엽(39·삼성 라이온즈) 타석에 쓰이면, 심판과 삼성 구단 관계자만 알 수 있는 표시가 붙는다. 이 공이 400호 홈런으로 연결되면 '귀한 공'이 된다.

아직까지 가격은 '측정 불가'다. 외국 경매 사이트의 한국인 관계자는 "돈으로 환산하기 가장 어려운 경매 대상품 중 하나가 스포츠 관련 물품이다. 더구나 한국은 스포츠 경매시장이 매우 협소해 더 예측이 어렵다"라며 "400호 홈런볼 경매 시작가는 1억원을 넘길 것이다. 그 이상은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 라이온즈는 "이승엽 400홈런공의 주인은 당연히 공을 잡은 팬"이라고 밝히면서도 공을 기증하면 각종 혜택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은 "만약 공을 잡은 팬이 구단에 이를 기증하면 공을 삼성 라이온즈 역사박물관에 전시할 예정이다. 기증한 팬에게는 갤럭시S6 1대, 전지훈련투어 2인 상품권, 이승엽 친필 사인배트를 선물할 것이다. 또한 이승엽 400홈런 공식 시상식 당일 시구자로 모실 생각"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알려진 한국프로야구 홈런볼 최고가는 1억2000만원이다. 이승엽이 2003년 6월 22일 대구 SK전에서 기록한 아시아 최연소 300호 홈런볼을 구관영 에이스테크놀로지 회장이 1억2000만원에 샀다.

한편 KBO가 올시즌 시행하는 세이프 캠페인에 따라 1m가 넘는 잠자리채의 경기장 반입이 금지되면서 이승엽이 56홈런을 달성한 2003년 야구장을 휩쓴 '잠자리채 물결'은 볼 수 없다. /연합뉴스

염기훈, 슈틸리케호 첫 승선…홍정호·정성룡 복귀

러시아 월드컵 2차 예선 명단 발표…11일 평가전·16일 미얀마와 예선 1차전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을 준비하는 울리 슈틸리케 축구대표팀 감독이 K리그 무대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 '염마에' 염기훈(수원)을 처음 발탁했다. '보복폭행'으로 논란이 된 한교원(전북)은 제외됐다.

슈틸리케 감독은 1일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오는 11일 아랍에미리트 평가전과 16일 미얀마와의 월드컵 2차 예선 1차전에 나설 23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부상을 털고 재기에 성공한 수비수 홍정호(아우크스부르크)와 K리그에서 안정된 방어를 펼치는 골키퍼 정성룡(수원), 공격수 강수일(제주)도 오랜만에 발탁됐다. 성남FC의 '젊은 공격수' 황의조, '고공 폭격기' 김신욱(울산), 권순태(전북), 임창우(울산), 조수철(인천), 주세종(부산) 등 6명은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오른쪽 날개로는 지난 1월 아시안컵에서 다쳤다가 최근 회복한 이청용(볼턴)이 발탁됐다.

하지만 경기 도중 상대 선수를 쫓아가 주먹을 날려 중징계를 받은 한교원(전북)을 비롯해 골 감각을 찾지 못하고 있는 박주영(서울)은 명단에서 빠졌다.

이번 명단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단연 '왼쪽 날개' 염기훈이다. 올해 32살인 염기훈은 올해 K리그 클래식은 물론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와 FA컵을 포함해 8골13도움(정규리그 6골6도움·AFC 챔피언스리그 2골5도움·FA컵 2도움)의 맹활약을 펼치며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염기훈이 대표팀에 발탁된 것은 지난해 1월 '홍명보호'의 브라질 동계 전지훈련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염기훈은 왼쪽 날개 자리에서 '손세이셔널' 손흥민(레버쿠젠)과 선의의 주전 경쟁에 나설 예정이다.

슈틸리케 감독은 기성용(스완지시티)-구자철-박주호(이상 마인츠)등 부상과 기초군사훈련 때문에 소집에서 빠진 해외파 주요 선수들의 공백을 기존 선수들로 대체했다.

구자철의 섀도 스트라이커 자리는 남태희(레퀴야)가 맞고 왼쪽 풀백에는 김진수(호펜하임)가 발탁됐다. 중앙 미드필더로는 장현수(광저우 푸리)와 한국영(카타르SC) 등이 이름을 올렸다. 또 수비형 미드필더 최보경은 27살의 나이에 국가대표에 처음 뽑히는 기쁨을 맛봤다.

특히 '차미네이터' 차두리(서울)의 태극마크 반납에 따른 오른쪽 풀백 자리는 김창수(가시와 레이솔)와 정동호(울산)가 대신한다. 최전방 공격수로는 '슈틸리케호의 황태자' 이정협(상주)과 이용재(V바렌 나가사키)가 선발됐다. /연합뉴스

아깝다, 세계 1위

박인비, LPGA 숍라이트 공동 5위…1타차로 탈환 실패

박인비(27·KB금융그룹)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숍라이트클래식(총상금 150만 달러)에서 공동 5위를 차지했다.

세계 랭킹 2위 박인비는 1일 미국 뉴저지주 갤러웨이의 스톡턴 시뷰호텔 골프클럽 베이코스(파71·6천177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1개를 묶어 3언더파 68타를 쳤다. 최종합계 4언더파 209타의 성적을 낸 박인비는 이미림(25·NH투자증권), 카리 웨브(호주) 등과 함께 공동 5위로 대회를 마쳤다.

이 대회에서 공동 3위 이상을 기록했더라면 세계 랭킹 1위 자리를 탈환할 수 있었던 박인비는 1위 리디아 고(뉴질랜드)와의 간격을 좁힌 것에 만족하게 됐다. 박인비는 한 타만 더 줄였다면 공동 3위가 될 수 있었다. 리디아 고는 이번 대회에 나오지 않았다.

안나 노르드크비스트(스웨덴)가 최종합계 8언더파 205타로 우승했다. 우승 상금 22만5천 달러(약 2억5000만원)를 받은 노르드크비스트는 "오늘이 스웨덴에서 어머니 날인데 이번 우승이 큰 선물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다섯 번 우승했지만 대회장에 어머니가 오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기뻐했다.

부엘리용이 7언더파 206타로 준우승했고 재미동포 켈리 손(23)이 모건 프레슬(미국)과 함께 5언더파 208타로 공동 3위에 올랐다. /연합뉴스